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AUTUMN
제65호

Interview
캐나다 출신 에반 토마스

V-Log
부산청 승선검색 브이로그

Focus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Zoom in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KOREA
IMMIGRATION
SERVICE

표지 모델
◀ 에반 토마스(캐나다)
▼ 줄리안 한(독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의 무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청명한 하늘과 이마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드는 자연을 벗 삼아 풍성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뜻깊은 순간을 축하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기를 응원하였습니다.

한편,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혁신적 확대 방안,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체류환경을 조성하고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등록외국인도 국민처럼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는 '취업비자 총량제' 연구 용역 등을 준비·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합법 체류외국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년 제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23. 6. 12.~7. 31.)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 1천 명을 출국조치하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마약사범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제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체류 외국인의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을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들과 보름달 아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Dear readers,

After months of blistering heat, the time has finally come to welcome autumn – a beautiful season characterised by clear blue sky and crisp air. I sincerely wish you to take your time to experience the great natural beauty this season offers. Taking this opportunity, as always, I am glad to provide you with some key updates to our policies and achievements throughout the summer.

We held a nationality conferment ceremony for the descendants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on the 78th anniversary day of independence. We congratulated the moment they became new Koreans and sent our best wishes to realise their dream as being a proud Korean national.

We also did not spare effort to address rapid demographic change and labour shortages triggered by a shift in the structure of our industries. Recently, "Measures to abolish visa restrictions geared towards propelling economic growth" was announced. Key measures include a) innovative ways to expand the issue of E7-4 visas for skilled workers, b) providing accessible pathways in landing a job for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and c) offering greater support to retain talented individuals engaged in the cutting edge technology sector. Additionally, "Residence Card authenticity verification" was introduced to match the type of services available for non-nationals on par with global standards. This new scheme now expands the convenience of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already enjoyed by Korean nationals to registered non-nationals. We also plan to commission a research on employment visa quota system – geared towards catering to requests from sectors experiencing labour shortages – and release results by the end of this year. Such efforts are fine examples of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egal foreign residents and offering support to retain them in Korea.

On the other hand, we are investing efforts to ensure law and order among the foreign resident community by introducing policies to reduce the size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The second pan-governmental illegal migrant crackdown operation for this year took place from 12 June to 31 July to locate illegal foreign residents. This resulted in approximately 11,000 illegal foreign residents being deported and the apprehension of illegal employment brokers and drug criminals. The third pan-governmental operation is to take place from mid-October until the end of this year.

Our ceaseless effort to discover minor daily challenges experienced by non-nationals and make improvements will never stop. At the same time, we remain determined to show zero tolerance to foreign nationals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or those posing a threat to the integrity of our national security. This approach will be the foundation of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Korean nationals and non-nationals can co-exist in harmony.

The excitement of a long Chuseok holiday awaits us and I sincerely wish all of you a happy and fulfilling holiday with your friends and your loved ones.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공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고 풍년의 기쁨에 감사하는 계절,
가을에는 나눔의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에서
나눔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눔에서 비롯된 관심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마음을 모아
따뜻한 세상을 이룹니다.

CONTENTS

2023. AUTUMN / Vol. 65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우리

특집:
'공유'로 깨닫는 나눔의 가치

06
Interview
단풍국 청년 K-직장인, 유의미한 삶을 꿈꾸다
캐나다 출신 에반 토마스

10
Story
등록외국인, 이제 은행 가지 않고도
모바일뱅킹 사용 가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6

여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KIS

14
Focus
"오늘부터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18
Issue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출입국 업무!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

20
Zoom in
변화한 청사, 변함없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4
V-Log
부산항 국경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
송정현 주무관의 하루

28
KIS News

함께

함께 만드는
'공감' 이야기

30
Memoirs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민자 멘토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나의 도전
자히드 후세인

32
Proverb
흥미로운 일화가 얽힌 우리 속담

34
Culture
한국에서 만나는 작은 외국

36
KIS-tub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Letter for KIS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단풍국 청년 K-직장인, 유의미한 삶을 꿈꾸다

캐나다 출신 **에반 토마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에서 온 청년이 있다. 학업부터 취업까지 한국에서 혈혈단신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한국과의 진정한 공존을 꿈꾸고 있는 에반 토마스에게 K-직장인의 한국살이에 대해 들어본다.

Evan Thomas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과의 인연

태평양과 맞닿은 캐나다 서부의 관문이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밴쿠버에는 큰 규모의 한인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우리에게도 친숙한 도시다. 다문화와 다양성의 나라 캐나다에서도 유독 이민자가 많은 밴쿠버에서 나고 자란 에반 토마스(이하 에반)는 어릴 적부터 한국과 인연이 깊었다. 이민 변호사인 아버지의 주 고객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에반의 아버지는 출장으로 50번 이상 한국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저녁마다 한국인 고객과 그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 친목을 다지곤 했다.

아버지를 따라 가끔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에반에게 한국은 새롭고 신기한 곳이 아니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다. 이런 성장 배경에서 그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 세계 여느 청년들이 그렇듯 에반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고향 친구들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대도시인 토론토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한국어 교수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해

I love

2018년 다시 한국에 온 그는 1년간의 한국어학당 교육 수료 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학교생활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컸지만 국내 여행을 하며 한국 곳곳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취업에 성공한 그는 현재 3년 차 직장인으로 지난 8월에는 호주로, 9월에는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직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아 힘들 만도 한데 "여행을 가는 건 아니지만 여행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하고 있다"며 "출장이 많다는 점은 우리 회사와 내 업무의 장점"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취업 준비생에서 K-직장인이 되기까지

에반이 재직 중인 회사는 IT 계열 국내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차의 눈(目) 역할을 담당하는 3D 라이다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에반은 사업개발팀 소속으로 해외 영업 직무를 맡고 있는데 단순한 영업을 넘어 프로젝트 유치와 진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다.

전 직원의 3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의 회사는 한국 기업임에도 직급을 '매니저'로 통일하고 영어로만 소통해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스타트업인 만큼 업무 영역이 다양해 힘든 점도 있지만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함께 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대학원 진학부터 취업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에반의 취업기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 청년들도 취업난을 겪는 와중에 외국인 학생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던 것이다. 일단 입사 지원서를 쓰는 것부터가 장벽이었다.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하려는데 이름 작성란에 '글자 수 초과' 알림이 뜨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했더니 '올바른 번호가 아니다'는 오류로 지원조차 못 한 적도 있었다. 동일한 능력을 지녔어도 외국인보다는 자국 학생을 선호하는 한국 기업의 분위기도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저는 사실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대학원 다닐 때 지금 회사 대표님과 알게 된 인연으로 입사했는데,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스타트업이라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네트워킹, 즉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요새는 링크드인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업계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기 쉽잖아요.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고 이런 걸 전공하는 학생인데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답해주거든요. 용기 내서 본인을 소개해야 해요."

한국에서 꿈꾸는 빛나는 미래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에반은 어려운 취업 과정을 거치면서도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캐나다에선 그냥 평범한 학생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한 외국인 학생이니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셈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인도 많이 가보지 않은 도서산간까지 구석구석 여행해봤다는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취미는 자전거 라이딩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3번 종단한 경험도 있고, 낙동강을 따라 여행하며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도 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자전거 여행을 계획 중이다.

고향 밴쿠버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피겨선수 김연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딴 곳"이라고 재치 있게 답하며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사람들도 예의가 있고 친절하다. 흔히 캐나다가 추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밴쿠버는 날씨가 따뜻한 편이다. 대신 비가 자주 온다"고 설명했다.

에반은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출연을 계기로 방송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제일 잘한 것이 한국어를 배운 것"이라며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연과 운 덕분이라 했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이다. 그는 다가올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하며 더욱 의미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게 살려면 뭘 해야 할까'를 고민했는데 취업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지금도 그 고민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인 목표는 내년부터 F-5 영주비자 취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고 한국에서 많은 기회를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계속 여기 살고 싶어요."

에반과 독일 출신 직장 동료 줄리안

>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고,
> 한국에서 많은 기회를 경험했어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에반

: 정리 편집실

등록외국인, 이제 은행 가지 않고도 모바일뱅킹 사용 가능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한 국민과 달리 등록외국인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의 경우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등록외국인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배경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유통 등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중 은행들도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지한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등록외국인의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으로는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이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이용해야 할 때마다 은행,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시행을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등록외국인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외국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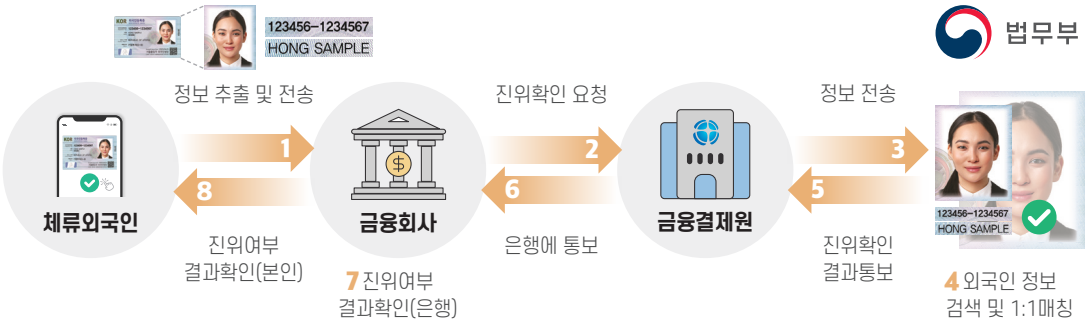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의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금융회사 → 금융결제원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회사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대상 신분증

외국인 신분증 3종(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용 수단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웹(비대면), 각 영업 지점(대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제1금융권 은행)

비대면(모바일 앱/웹) 적용	대면(영업점) 적용
전북은행·하나은행·토스뱅크(인터넷 전문은행)	광주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부산은행

※ 제2금융권은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확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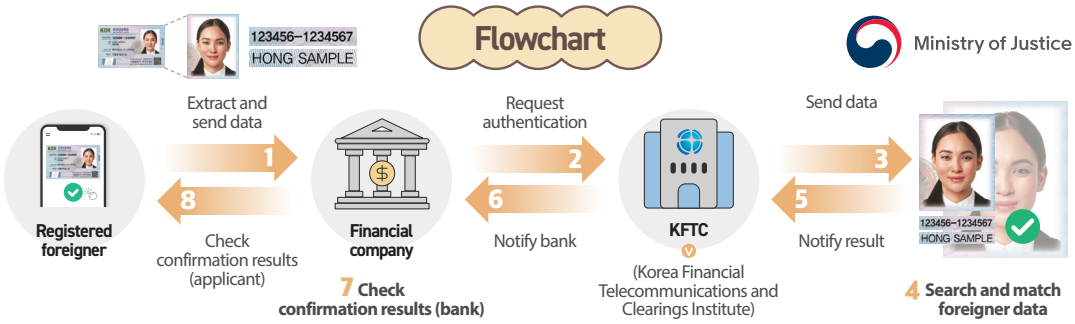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vailable to Registered Foreigners**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s implementing the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from September 18, making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ccessible for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This service aims to allow registered foreigners to conduct financial transactions with their mobile phones without having to visit a bank in person.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In case a registered foreigner needs to carry out identification verification with his/her residence card when using a mobile app for banking services, the registered foreigner may submit the Residence Card (including Permanent Resident Card and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information to the financial company, which will then transmit this data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nduct comparison of the card details and the photo with previously stored data, and reply back to the financial company, confirming the card authenticity in real-time.

Flowchart



Financial company → KFTC → MOJ

Send data extracted from the residence card (personal information and photo data)

MOJ → KFTC → Financial company

Reply authentication confirmation results in real-time

Eligible ID Card

3 types of foreigner ID cards (Residence Card, Permanent Resident Card,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Means of Use

Mobile app / websit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t bank branches

Participating Financial Companies (banking sector)

Mobile app / website	Bank branch
Jeonbuk Bank, Hana Bank, Toss Bank (internet primary bank)	Gwangju Bank, Kookmin Bank, Daegu Bank, Shinhan Bank, Busan Bank

※ The service aims to extend its coverage to include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an evaluation of the system`s stability and demand from financial companies.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오늘부터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로 외국 국적자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총 2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강제이주 등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옮겨 간 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고, 이들의 후손 역시 한국인의 핏줄을 물려받았음에도 외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을 맞아 선열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월 7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러시아 9명·중국 6명·미국 2명·캐나다 2명·카자흐스탄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여느 때보다도 밝고 희망찬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후,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재유

본부장은 “오늘 수여식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맞바꾼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선조들의 나라가 아닌, 나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한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무한한 성장과 기회를 향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국적증서 수여식

이어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 소로키나 올가 씨가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로 국민선서를 하고, 한 명씩 단상에 나와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재유 본부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적증서를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적증서를 품에 안은 후손들 일부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감정에

북받친 모습이었다. 특히 한 후손은 어린 아들이 국적증서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눈물을 흘려 뭉클함을 자아냈다.

국적증서가 모두 수여된 후에는 남인상 선생의 후손 김용남 씨가 소감을 발표했다. 1868년 함경남도 안변에서 출생한 남인상 선생은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힘써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단상에 오른 김용남 씨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본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름답고 정직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독립군비단 활동을 통해 1995년 애족장에 추서된 강상진 선생의 후손 김마리나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들을 잊지 않고 저와 같은 후손들에게 국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쓰셨던 것처럼, 저도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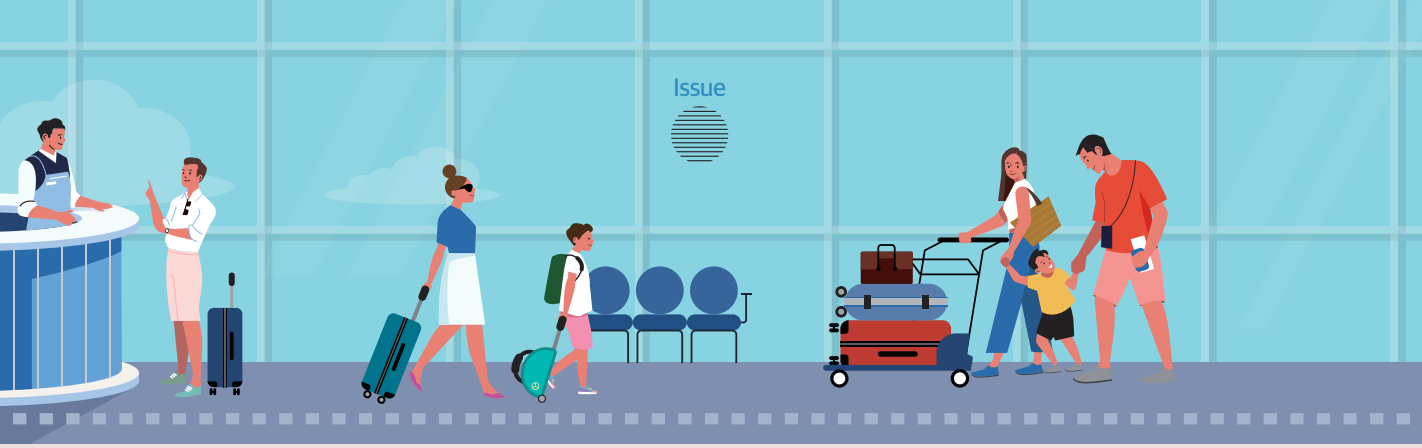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앞으로도 계속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이재유 본부장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후손들은 국적증서를 자랑스럽게 펼쳐 들고 가족,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하루를 기록했다.

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후,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대검찰청이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어 법무부의 귀화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학수사부)와 공조하여 DNA 검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부 또는 모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녀에 대해 DNA 검사 시행)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내고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더 많은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수여식이 뭉클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름답고 정직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출입국 업무!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

01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이란?

출입국·외국인 관서 주요 6개 기관*의 업무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현장 개방 프로그램으로, 출입국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2 출입국 현장투어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까?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입국재심 현장 견학, 자동출입국심사·여행문서 감식 시연 등

(출입국·외국인 관서) 체류·난민·조사·국적·이민통합 등

03 출입국 현장투어 신청 절차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페이스북·카카오 채널을 통해 참가자 모집 일정 사전 안내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
3. 참가자 선정 결과 발표 (본부 누리집)
4. 현장투어 실시 기관에서 선정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 메일 발송
5. 현장투어 참가

04 2023년 남은 현장투어 일정은?

일정	실시 기관	모집인원
10월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광주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각 기관별 10~15명 이내
11월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자세한 일정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페이스북·카카오채널에서 안내 예정

Visit our immigration offices!

The best way to experience and learn what we do!

01 What does a visit to our immigration offices offer?

The visit allows all people, including non-nationals, to visit one of our key six immigration offices listed below. It offers first-hand experience and involves active engagement in learning what we do.

* Incheon Airport/Seoul/Incheon/Gwangju/Daejeon/Busan Immigration Offices

02 What can I experience through the visit?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offers an experience to observe how immigration clearance, secondary interview,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and document authentication work. The remaining immigration offices offer an opportunity to see how matters on residence, refugee, investigation, nationality and integration are handled.

03 How can I reserve my visit?

1. Available visit schedule will be announced at our website and our social network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n language only).
2. Book your visit at our website.
3. Accepted candidates will be announced at our website.
4. The immigration office will contact you separately by email.
5. Take part in your scheduled visit.

04 What visits are available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Month	Immigration Offices accepting visits	Capacity
October	◎ Incheon Immigration Office ◎ Gwangju Immigration Office	10 to 15 visitors per office
November	◎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 Seoul Immigration Office ◎ Incheon Immigration Office ◎ Busan Immigration Office ◎ Daejeon Immigration Office	

* Details will be announced at our website and our social network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n language only).

변화한 청사, 변함없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수도 울산광역시와 천년수도 경상북도 경주시를 관할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최근 신청사로 이전했다. 새로워진 환경에서 변함없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달라진 면면을 살펴본다.

새로운 청사에 어서 오세요

울산광역시는 대형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항구도시로 조선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도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각자의 사연을 품고 모여든 3만여 명(2023년 8월 기준)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울산과 경북 경주시를 관할하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울산사무소)는 관내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사증, 국적, 체류 등 민원 업무를 비롯해 출입국 사범 처리(단속, 사범, 보호), 선박검색 및 선원 출입국심사 등을 담당한다.

지난 6월, 울산사무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2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신축한 청사로 이전했던 것이다. 임대 건물에 입주해 있던 구청사는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기에는 화장실, 주차장, 민원실 대기공간 등이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호실 규모 또한 작고 열악한 탓에 보호 외국인이 다수 입소하는 날이면 급식, 계호, 입소교육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되어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신청사에서는 시설에 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신청사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울산사무소 직원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울산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릴 것"이라고 힘주어 밝혔다.

영남권 전문 외국인 보호시설로의 변화

신청사 이전 후 울산사무소의 가장 큰 변화는 영남권 전문 외국인 보호시설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3, 4층 전 층이 남녀 보호실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사무소에 입소한 보호 외국인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 울산사무소 보호과는 현재 영남권 등지에서 보호 의뢰되어 입소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조속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울산사무소 내 외국인 보호실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다양해졌다. 구청사에는 외국인 급식 시설이 없어서 보호 외국인들에게 외부 음식을 제공했지만 메뉴가 한정되어 외국인들이 밥을 남기거나 먹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울산사무소는 신청사에 외국인 전문 급식 시설을 마련하고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해 조리사들과 메뉴를 의논하고 평가해본 후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울산사무소와 급식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음식과 관련한 보호 외국인들의 불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보호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필요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번은 울산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한 여성 보호 외국인이 출입국사범으로 적발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정당한 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호과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 속마음을 이끌어내고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이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한 보호 외국인은 본국 송환 전 직원들에게 감사편지를 작성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렇듯 보호과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 외국인들을 계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울산사무소는 변함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로 방문객들을 환영한다.

남다른 팀워크로 어려움도 척척

울산사무소 직원들이 꼽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청사 이전과 8월에 진행된 을지연습이었다. 울산사무소 전 직원은 올해 상반기 업무 공백 없이 청사 이전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누구 하나 불만 없이 업무에 임했다. 관리과 장정휘 주무관은 "올해는 청사 이전으로 모든 것이 어수선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모든 직원들이 을지연습 야간근무 후 피곤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맡은 일을 수행했고, 청사 이전 시에도 다 함께 주말에 출근해 짐을 나르는 등 열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울산사무소만의 독특한 팀워크가 있다. 울산사무소는 누구나 직원 경조사에 참석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는데,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한 박경원 주무관을 축하하기 위해 강대열 소장이 기저귀 등 선물을 건네고 각 팀 직원들이 모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직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오늘날의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업 관련 E-7 비자 요건을 개선한 가운데 향후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울산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산사무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서비스와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울산사무소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한다.

Mini INTERVIEW

"세계화에 발맞춘 명품 출입국 행정서비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대열 소장

산업도시 울산과 천년고도 경주를 관할하는 울산사무소는 세계화에 발맞춰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과 절차 간소화로 친절·신속·정확한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출입국 행정수행으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명품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울산사무소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근 핫플레이스

★★★★☆

대왕암 공원

울산의 명소로, 처음 방문했을 때 수백 그루의 해송 그늘을 거닐며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산책 후 전복밥 전문점인 '섬뜰'에서 식사를 하면 완벽한 관광 코스가 될 것입니다!

- 지인혜(심사과) -

태화강 국립공원

울산의 No.1 관광지 아닐까요? 십리대숲 사이를 걷다 보면 상쾌한 공기를 한껏 느끼고 싶어집니다. 근처에 맛집도 많은데 울산 최고의 소고기찜을 파는 '방이편백 육분삼십' 추천합니다.

- 전세환(보호과) -

함양집

제가 생각하는 울산 최고의 맛집은 달동의 육회비빔밥 전문점인 '함양집'인데요, 직원 점심 모임이 있거나 외부인을 접견할 때 예약해서 음식을 대접한 곳입니다.

- 신혜경(관리과) -

영남알프스

유럽 알프스 못지않은 경치를 자랑하는 명산입니다. 종주하면 기념품으로 메달도 제공됩니다. 근처 한옥 카페 '농도'에서 바라보는 영남알프스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 장정휘(관리과) -

V-LOG

부산항 국경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 송정현 주무관의 하루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청)은 지난해 4월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 및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와 밀·출입국 방지를 위해 법무부 제1호 감시정 황옥호를 도입했다. 황옥호에 승선해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드나드는 선박의 출입국심사와 해상국경을 빈틈없이 수호하고 있는 부산청 승선검색 담당 송정현 주무관의 일일 업무일지를 만나본다.

AM 05:50 이른 아침 출근 완료!

부산청 선박팀은 다른 항만출입국·외국인관서와 달리 다양한 선박이 입항하는 국제무역의 중심항으로,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출입국심사·상륙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출항 선박 중 약 30%(연평균 4만여 척)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제1의 허브 항만, 부산항의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선박팀의 일과를 따라가 보실까요?

AM 07:00 선박 출입국심사 시작

저희 선박팀은 항만업무 특성상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승하선 수속을 위해 일 평균 400명의 내·외국인 선원 및 운수업자들이 방문하며 일 평균 선박 100척, 선원 2,000명에 대한 상륙 허가 및 출입국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선박팀 직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답니다.

AM 08:30 선박검색 대상 선정 회의

제가 맡은 주 업무는 승선검색으로, 특히 부산항 부두 및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직접 승선해 밀입국자, 규제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승선검색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저희 선박팀 동료들은 10년 이상 다양한 경험과 업무 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선배와 열정 넘치는 후배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즐거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AM 10:00 황옥호 타고 승선 검색

감시정 황옥호에 승선해 부산항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선박에 설치된 줄사다리를 이용해 선박에 승선해 밀·출입국자 등 국익위해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는데, 선박에 오르내릴 때 위험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경관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20여 명의 출입국사범을 해상에서 적발해 의법조치하는 등 항만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M 12:00 점심식사

해상 승선검색을 마치고 복귀하면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식사는 부산 맛집 중 하나인 부산청 청사 4층 구내 직원식당에서 하는데,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선원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매우 유동적이고 편히 먹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 및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PM 01:00 수영만요트경기장 순찰 및 승선검색

최근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을 이용해 부산항-외국항을 여행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0여 척의 마리나 선박이 수영만요트경기장을 통해 입출항하는데 밀·출입국자 방지를 위해 해당 선박에 대한 정밀 승선검색을 실시합니다. 미보고 마리나 선박의 입출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도 수시로 병행합니다.

PM 03:00 조선소·부두 순찰 및 승선검색

부산항은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으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의 모항(母港)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선박의 수리를 위한 조선소가 약 30여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소는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해 순찰 및 검색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등 화물선 부두도 밀·출입국자 차단을 위해 선박검색과 순찰에 만전을 기합니다.

PM 08:00 선박·선원정보 분석도 철저히

현장에서 진행하는 승선검색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보고되는 선박 및 선원 정보에 대한 사전 분석도 진행합니다. 사전분석을 통해 국익위해자 확인 시 운수업자를 통한 감시원 배치 요청,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주무관

"사명감으로 국경 최일선을 수호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지만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평소 체력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경 최일선에서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차단하여 우리나라 안보 및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AUTUMN Vol.65

법무부 장관, 日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키쿠치 히로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한·일 양국의 공통되는 도전과 위기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출입국·이민정책에 있어 비슷한 국민정서를 가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일본은 2019년 4월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신설했고, 키쿠치 히로시 현 출입국재류관리청장은 제2대 청장이다.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유엔난민기구, 「이민·난민용어사전」 공동 발간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이민·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했다. 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했다.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했다. 아울러 용어별 설명에 더해 이민·난민 정책 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해 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50일간)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중 5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민자 멘토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나의 도전

글 자히드 후세인

2008년 6월 26일은 내가 한국에 처음 온 날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기도 하다. 히말라야 산속 고산지에 살던 나에게 낯설기만 했던 나라, 떨리는 설렘 속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한국을 고향같이 느낀다. 처음에는 음식 문화 차이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식 없이 못 살 만큼 한식파가 되어 오히려 파키스탄에 가면 음식이 안 맞아서 속이 불편할 정도다.

한국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루고픈 꿈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고 결국 한국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학생 시절부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에서의 나의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채워나가고자 노력했다.

서울국제유학생 포럼 회장 활동을 시작으로 파키스탄 학생회장, 용산경찰서 외국인협력회 서기장,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 서울 명예시민, 서울시 관광협회 홍보대사 및 다변화 자문위원, 한글글로벌홍보대사, 서울휠체어마라톤 홍보대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멘토, 법무부 자문위원, 교육부 GKS 발전 자문위원 그리고 (사)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동문회 대표이사, 용산구청 외국인 명예통장 그리고 파키스탄 대표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요즘은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조깅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법무부, 교육부와 함께하는 활동을 좋아한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외국 학생과 근로자를 초청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은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나도 한국 사회에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 활동은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의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연수원, 시청, 구청 등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도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람을 느낀다. 한국에서는 대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대학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장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비를 들여 학업하고자 하는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있다. 오는 11월 2일 개최되는 '2023년 서울 글로벌인재포럼'에 영광스럽게 외국인 학생 동문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기도 하다.

나는 제2의 고향인 한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에게 이런 기회들을 알리고 싶다. 단순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돈을 번다는 마음보다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한편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생활을 더욱 슬기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 생활이 아직은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 분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하고 싶다.

자히드 후세인

파키스탄 출신으로 법무부 자문위원·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환경 활동가·(사)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동문회 대표이사·할랄 식품 플랫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흥미로운 일화가 얽힌 우리 속담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은 아주 작은 먼지나 부스러기를, 태산은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높이 1,545m의 산 이름으로 아주 높고 큰 산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모이다 보면 나중에 큰 것이 됨을 뜻하는 속담이다. 이 속담과 관련해 알려진 일화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항복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어린 이항복이 대장간 근처에서 놀다가 버려진 쇳조각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의 아버지는 공부할 시간에 쇳조각을 주워왔다며 꾸짖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쓸모없는 쇳조각도 쓰일 데가 있을 것"이라며 이해해주셨다. 그 이후로 이항복은 쇳조각을 발견할 때마다 독에 모으기 시작해 어느덧 세 개의 독을 가득 채웠다.

어느 날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재산을 잃고 낙담하자 이항복이 그동안 모은 쇳조각을 가져다줬고, 대장장이는 그 쇳조각으로 대장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티끌 모아 태산'의 교훈을 깨달았다고 전해진다. 현대에 와서는 적은 금액을 아껴 저축할 때 활용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우리 속담에는 흥미로운 일화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현재도 자주 쓰이지만 의미와 유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속담 두 가지를 살펴본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법인데 왜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주라고 할까? 이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어야 후환이 없고 나쁜 감정도 사라진다는 의미다.

옛날에 어느 집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무속인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백일 동안 매일 만들어주면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비책을 내놨다. 신이 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인절미를 매일 정성 들여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던 시어머니도 매일 같이 인절미를 해주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해 잘해주기 시작했다. 백일이 되어가자 며느리는 자신을 아껴주는 시어머니가 죽을까봐 두려워져 다시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눈물로 애원하는 며느리를 보고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지 않았냐"며 미소지었다 한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일화와 같이 어렵더라도 원수에게 인정을 베풀다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만나는 작은 외국

남해 독일마을

196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헌신한 교포들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조성된 곳이다. 독일산 재료로 건축한 전통 독일식 주택은 실제로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 식당, 파독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어 독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독일식 주택의 붉은색 지붕과 대비되는 푸른빛 남해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매년 10월에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를 모태로 한 독일마을맥주축제를 개최해 다양한 독일 문화 체험과 정통음식을 맛볼 수 있다.

주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74-2
문의 055-867-8897 (관광안내소)

인천 차이나타운

한국 최초의 외국인 마을인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중국인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곳이다. 과거에는 중국제 물품을 파는 상점이 많았으나 현재는 중화요리와 중국식 음료,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식당, 제과점들이 대다수다. 한때 한국에서 화교가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으로 중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한국식 짜장면이 처음 개발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로 짜장면을 판매했던 장소는 현재 짜장면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인근에 자유공원, 동화마을, 월미도 등 함께 구경할 만한 여행지가 다양해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주소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26번길 12-17
문의 032-777-1330 (관광안내소)

걷다 보면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마을이 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형성한 이국적이고 독특한 감성의 외국 마을에서 한국 속 해외여행을 떠나보자.

가평 쁘띠프랑스

'작은 프랑스'라는 의미의 쁘띠프랑스는 2008년 가평군 청평면에 조성된 프랑스 문화마을 콘셉트의 테마파크다. 문화체험공간이기 때문에 거주민이 사는 공간은 아니지만 프랑스식 건축 양식과 파스텔 컬러가 어우러진 주택이 조성되어 있어 실제 프랑스를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생애를 소개하는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프랑스 고택을 들여와 지은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유럽에서 수집한 골동품 전시관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인형극, 오르골 시연 등의 공연도 펼쳐져 온 가족이 다 함께 다채로운 프랑스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063
문의 031-584-8200

아산 지중해마을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지중해마을은 본래 포도 농사를 짓던 마을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자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이 재정착한 마을공동체다. 정식 명칭은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로, 그리스 산토리니섬과 프랑스 남부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66동의 건물이 조성되어 있다. 산토리니 특유의 하얀색 벽과 돔 형태의 푸른색 지붕이 돋보이는 산토리니 구역,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한 파르테논 구역, 파스텔 톤 프로방스풍으로 꾸며진 프로방스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동은 식당, 카페, 상점과 공방, 전시 체험공간,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55-7
문의 041-547-224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1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 축제

facebook

2023년 10월 29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과 하늘공원 일대에서 '제10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가 열립니다.

#2

K-point E74 제도 시행
숙련기능 인력 확대

YouTube

숙련기능 인력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 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immigration.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진심이 담긴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의 칭찬 대상자가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개한다.

친절·정확성·책임감에 감동 받았어요

칭찬합시다

항상 바쁜 평택출장소라 걱정하고 갔는데, 김정우 님이 저의 사정을 들으신 후 행정 처리 과정 절차를 설명해주시고 후속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셨어요. 친절과 정확성, 책임감에 감동 받았고 한국어가 조금 부족한데도 잘 들어주셔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Kang OOOOOO 씨

"서무·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쑥스러우면서도 공직에 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김정우 주무관

고국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칭찬합시다

많은 세월이 지난 정보를 확인해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권회숙 님이 끝까지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도와주려 애써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찾은 고국에서 위로와 고마움,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Balser OOOOO 씨

"국적 및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데, 민원인의 국적회복 신청 중 누락된 기록을 찾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 문의해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의 글을 받게 돼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권회숙 주무관

공존 공감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AUTUMN
Vol.65

EVENT #1

독자 의견

2023년 <공존> 가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3년 9월 28일(목) ~ 2023년 10월 20일(금)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3년 10월 24일(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혀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출입국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신청사 이전 후 영남권 전문 외국인 보호소로서 활약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어디일까요?

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③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④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정답 마감 2023년 10월 20일(금)
당첨자 발표 2023년 10월 24일(화) 당첨자 개별 통보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정부 혁신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해당 기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23. 12. 31. (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단, 밀입국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등은 제외)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

2023. 9. 11. (월) ~ 2023. 12. 31. (일)까지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